

매장 앞 스트리트 댄스... “활기찬 충장로” 혼신

충장로 살리기 프로젝트 <6>
14년째 웃가게 운영 청년사장

댄서·시민 참여 춤 행사 진행
입소문 타고 온 관객·후원인 ↑
“충만 에너지로 상권 살리고파”
상인회 “함께 활성화에 노력”

“젊은이들이 즐길 거리가 부족하잖아요. 아직 작은 콘텐츠지만 점차 충장로 대표 프로그램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이 충장로 살리기에 나섰다. ‘스트리트 댄스’를 통해서다. 조그만 가게에서 열린 행사에는 입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로 가득하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도움도 없다. 오롯이 자신들의 재능 하나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바로 ‘소행성컴퍼니(SIB)’다.

최근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1가 SIB 매장.

입구에서부터 십수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유난히 많은 인파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신기한 듯 가웃거린다. 매장 앞 통유리창 너머에는 댄서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다. 신나는 음악에 관객들도 절로 어깨를 들썩인다. 스트리트 댄스 행사 ‘IT DA JAM’ 풍경이다.

IT DA JAM은 ‘재미를 잇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SIB가 ‘충장로를 젊음과 연결하겠다’는 포부로 지난 8월부터 시작했다. 광주·전남 지역 댄서·댄스팀과 함께



지난달 19일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한 매장에서 열린 ‘IT DA JAM’ 행사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최신 가요 등으로 즉흥 댄스 퍼포먼스를 펼친다. 매달 둘째주 열리는 이 행사에는 입소문을 타고 온 시민들이 늘고 있다.

친구와 함께 찾은 김수진(23)씨는 “인스타그램(SNS)을 보고 왔다. 추운 날씨인데 댄서들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인다”며 “우리 또래들에게 충장로는 ‘젊다’는 느낌이 없다. 이 행사에서는 유일하게 ‘젊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과 구경하던 이정오(48)씨는 “어릴 적 춤을 췄었다. 나이가 들어 잊고 살았는데 댄서들을 보니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느낌이다”며 “댄스 실황은 충장축제 같은 게 아니면 보기 힘들다. 잇다잼 행사가 매달 진행된다고 하는데 참 기특한 느

낌이다. 조금만 젊었으면 나도 참여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SIB는 충장로에서 10년째 운영 중인 남성 의류 매장이다. 20·30대로 이뤄진 운영진들은 주요 상권에서 일하며 충장로 흥망성쇠를 모두 겪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줄자 결국 ‘상권 활성화’에 직접 나섰다.

이현진 SIB 매니저는 “지자체 등 도움 없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카페·이색 거리 등으로 변신에 성공한 ‘동명동’이 눈에 띄었다. 마침 DJ를 하는 매장 관계자가 있어 ‘춤을 접목시켜보자’고 했다”며 “광주 모든 댄스학원에 연락했다. 시간 되는 사람들은 꼭 와달라

고 했다. 그렇게 댄서 30명으로 첫 공연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어느덧 세 번째 공연을 하는 동안 댄서뿐 아니라 관객들도 행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 밖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실내로 들어가 함께 프리스타일 춤을 추는 것. 이날도 4~5명의 관객이 현장에서 자신의 춤 솜씨를 뽐냈다.

과거 댄서였던 김윤현씨는 “즉흥 댄스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 오늘 간단히 춤으로 교감하니 즐거웠다”며 “이런 행사가 개최돼 반갑다.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장로 청년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IT DA JAM’의 목표는 이제 핵심 프로

그램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황인욱 SIB 대표는 “육심내지 않겠다. 충장로를 살리는 콘텐츠 개발에만 전념하겠다. 광주 사람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며 “추후 매장을 벗어나 도청 앞에서 크게 열고 싶다. 충장로가 댄스 성지로 불리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성 충장로 123가상인회장은 “청년들이 상권 활성화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젊은이들이 함께해야 충장로가 살 수 있다”며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인 만큼 상인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지역 노동계 “광주시, 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책임져라”

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본부 회견

지역노동계가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폐업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광주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공공병원 폐업 사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수탁을 맡았던 전남대병원에 12월31일자로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하고, 오는 15일까지 환자들을 전원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이 수익을 내려면 포괄수가제의 낮은 수가 때문에 300명상 이상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설 수 있다”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198병상으로 규모도 작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광주시가 지정하면서 당시 발생한 적자 10억원도 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나 적자 문제는 개별 노사가 풀어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많은 민간요양병원은 인력을 줄이고 근무조건을 바꿔 노동강도를 높여 적자를 수익으로 바꾼다. 당연히 부족한

의료인력과 열악한 근무조건은환자들 케어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노조는 민간요양병원 폐단을 극복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인력과 근무조건을 유지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근무인력과 근무조건을 유지하면 환자,보호자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병원은 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의료재단이 공공병원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병원의 적자의 책임을 운

영 재단과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위기를 막고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은 광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공익적자’를 광주시가 대부분 부담하거나 공공병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공공의료에 투입된 정당한 비용은 광주시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용서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순사건 유적 도록

‘역사 유적지로 보는 여수·순천 10·19사건 그날의 현장’ 발간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그 날의 현장 93곳 수 차례 답사, 학계·연구자 고증 거쳐 420여 장 고화질 사진으로 묶어 펴내

전라남도

